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송태홍 목사(전 터키 선교사) 초청예배로 드립니다.
- ◎ **월식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6월 1일)은 6월 월식 기도회 날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 ◎ **섬김:** 찬양대로 교회를 섬길 성도들은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소프라노 각 1명, 테너, 알토 각 2명 (문의: 정혜숙, 박후임 집사)
- ◎ **협조:**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작은 게라지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5월 26일(주)~6월 16일(주일) 담당: 이정인 집사, 김승훈 형제
- ◎ **훈련:** 이번 주 임직자 훈련은 “주제토의 시간”을 갖습니다.
- ◎ **선교학교:** 바누아투 선교를 위한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감사:** 밀알 장애우를 섬긴 성도들, 선교학교에 식사 제공하신 성도, 루마니아 공동체, 게라지 세일에 수고한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 ◎ **월례회:** 다음 주는 월례회 주일입니다. 각 선교회 임원단은 회원들에게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성경완독:** 이현정, 정혜숙 집사 -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내 길을 비춰 주는 빛입니다(시 119:105, 현대인의 성경).
- ◎ **알림:** 성전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이 효력 상실했습니다.

5월 새벽 기도회 본문

- | | |
|-------------------------------------|---------------------------------------|
| 1일: 딤전 1:1-11 몰두해야 할 바른 교훈, 복음 | 3일: 딤전 2:1-15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
| 10일: 딤전 6:11-21 거룩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 17일: 딤후 3:10-17 말씀은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
| 24일: 시 144:1-15 하나님의 알아주시는 복된 백성의 삶 | 31일: 시 150:1-16 호흡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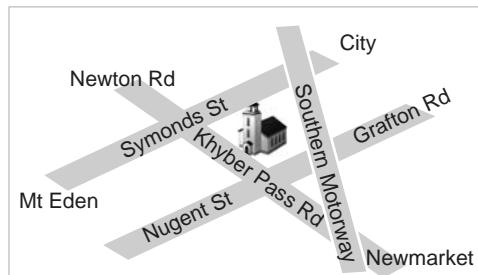
밀알장애인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는길



2013년 5월 26일

15권 21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I believe I can fly

어느덧 뉴질랜드에 돌아와 비행하며 지낸지도 10개월, 10년 전 메시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다닐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전 난생처음 오르는 하늘길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비행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을 하며 누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긍지와 사람들이 주는 부러운 시선들에 자신감과 그 만족감으로 지낸 지날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 대자연이 주는 축복을 한 나라 안에 담은 듯한 뉴질랜드의 경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낮이 보여주는 넓게 펼쳐진 초록 잔디 위의 하얀 양들과 푸른 바다색의 조화, 해질녘부터 보여주는 빨려 들어갈 듯 휙몰아오는 붉은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이곳 뉴질랜드를 더 사랑하셔서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여러 고운 색깔들을 사용해 만드셔서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환상의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슬 퍼런 바람과 부서질 듯 내리는 비는 위대한 만큼의 무서움도 느끼게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하나님과 그 곁으로 보내드린 어머니를 부르며 더 간절히 찾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님 곁에 먼저 가 계시기에 저의 기도를 더 잘 들어 주실 거라는 생각에 비행하는 내내 대화하듯 기도하면 끝날 즈음엔 두려움보단 아쉬움이 찾아와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해도 봅니다.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 없이 비행에 오르는 조종사들이 느끼는 비행 전의 두려움보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간다는 설렘을 안고 이륙하여 든든히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은혜로 착륙까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니 저에게 비행은 늘 더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비행할 때마다 가지고 올라가 하늘길. 구름 나무마다 걸어놓고 오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시간은 더더욱 없을듯합니다. 천국의 길목 가까이 구름마다 그 기도 제목들이 걸려 하나님 발길 손길 다 닿을 수 있도록 소중한 사명으로 여기며 늘 모두를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김승훈 청년부 간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요한1서 5:6~8
개회송	인도자
참회의 기도	찬양대
※ 찬송	다함께
※ 성시교독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다함께
대표기도	김순자권사
성경봉독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이태한목사
찬송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6월 교회일정

월사 기도회:
6월 1일(토)

성찬주일:
6월 23일(주일)

선교 수요일:
6월 6일(수)

항존 직분자 기도회:
6월 30일(주일)

◎ 6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추미선/이경자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장연식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덕철 집사
다음 주일 2부: 박병민 집사
6월 5일 수요기도: 문일숙 집사
6월 5일 애찬기도: 최광암 집사
6월 9일 1부: 박병민 집사
6월 9일 2부: 세일라 자매

금주의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성전 건물 이전 계획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무시로 기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도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임직자 훈련과 단기선교 훈련을 통해 팀원들 간의 풍성한 나눔의 교제가 있도록,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2. 뉴질랜드와 해외를 위해

모든 한인교회들이 침체된 뉴질랜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수단의 접경지역인 아브예이 지역이 석유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열강을 공의의 하나님께 치리하시며,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영육간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갈보리 공동체는 각 나라를 이름으로 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공동체의 나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살피고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일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터키에 대하여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국가로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공식 명칭은 터키 공화국으로 중동,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로서 동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터키는 본래 북아시아의 유목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6세기 중반경에는 동북아시아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는 제국을 세웠으나, 당나라에 의해 밀려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 역할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함락함에 따라 문화가 다양해졌고, 성 소피아 성당도 이슬람 사원으로 개축되는 아픔을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로 패망했고, 1923년 케말 아타튀르크를 비롯한 군인들이 혁명을 주도하여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터키의 인구는 70,586,256만 명이며, 약 41%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은 밀, 쌀, 면화, 담배, 개암, 과일 등이며 주요 가축은 양이며, 터키는 세계 유수의 면화와 양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퀴르드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명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98%가 이슬람교입니다. 1923년 이후에는 터키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으나 형식적일 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대단하여 근래에도 선교사들이 피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터키는 신약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복시록에 나오는 애페소 교회, 세르미나 교회 등의 7개의 아시아 교회들이 존재했으며,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등 초대교회의 교리가 공의회를 통해 정리된 곳이라는 점에서 교회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터키 음식으로 써는 터키 커피, 케밥, 터키 흉차 등이 유명하나 그 중에도 케밥은 세계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

- 기독교의 옛 성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은밀하게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안전과 더불어 지치지 않도록.